‘국민남매’ 악동뮤지션 새 앨범으로 컴백

2년 동안 자신들의 성장을 표현한 ‘사춘기 상’ 발표

그냥 말을 하는데 완성된 노래소리처럼 들린다. 이런 목소리를 갖고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천재 뮤지션’으로 불리는 국민남매 ‘악동 뮤지션’이야기다.

2012년 SBS TV ‘K팝 스타’를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악동 뮤지션’이 공백기를 지나 새 앨범 ‘사춘기 상(思春記 上)’으로 돌아왔다.

YG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고, 2년 동안 악동뮤지션의 성장을 표현한 앨범이다. 시기 기(期)가 아니라 이야기를 뜻하는 기(記)를 썼다. 세상에 대한 관심, 꿈과 사랑에 대한 설렘, 자아에 대한 고민 등 10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다.

앨범을 내기까지 고통의 터널을 건너왔다. ‘악동뮤지션은 걱정 없지’, ‘악동뮤지션은 어떤 노래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줄 거야’ ‘무조건 1위 할 거야’등의 긍정적 시선이 오히려 남매에겐 부담이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이수현)

하지만 “기교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성장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 (좋아해 주셨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악동뮤지션의 색으로 봐 주실 걸 알기 때문에.”(이찬혁)

‘밝고, 청량하고, 어쿠스틱한 음악’과 ‘점차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음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후자로 뚝심 있게 밀고 나왔다. “그래서 기존의 악동뮤지션 컬러가 아닌 ‘리바이(RE-BYE)’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를 타이틀로 했다.”

겉으로 들리는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앨범을 관통하는 코드는 ‘순수함’이다. 악동뮤지션이 음악을 하면서 계속 지켜나갈 단어다.

이번 앨범 수록곡도 전부 이찬혁이 만들었다.

크고 작은 이별을 겪는 감정을 묘사한 ‘리-바이’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당연한 게 신기해서 만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남녀 간의 헷갈리는 마음을 표현한 ‘새삼스럽게 왜’, 다른 사람과 소통의 어려움을 담은 ‘주변인’ 등 모두 6곡으로 특유의 재기발랄하고 신선한 감성을 그렸다.

이찬혁과 이수현은 남매이면서 더할 나위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찬혁이 만든 노래에 수현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

동시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며 각자의 세계를 세우고 있기도 하다. 빈지노와 지코의 랩을 좋아하는 이찬혁은 노래와 랩을 연습하며 욕심내고 있고, 이수현은 작사·작곡에 도전했다.

“오빠 동생이니까, 제가 작사·작곡을 한다고 하면 다들 ‘너는 잘 하겠지’ 해요. 부담감이 벌써 있어요. 오빠랑 비슷하지 않고, 흔하지 않은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수현).

“초반에는 제 스타일을 많이 따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외면했죠.”(찬혁), “절대 칭찬은 안 해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곡 만들면 너무 좋다고 해줬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수현)

그 전에 두 사람은 또 한 번의 공동 작업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춘기 상’을 잇는 ‘사춘기 하’를 준비하고 있다. ‘사춘기’앨범이 완성된 후 이찬혁은 입대를 계획 중이다.

티격태격 경쟁하는 ‘국민 남매’지만 서로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서로 자존심이 세고, 남들이 칭찬하는 것도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찬혁은 “수현이의 목소리”를 수현은 “찬혁오빠의 작사, 작곡!”을 인정한다. “부모님도 늘 누가 더 뛰어난 게 아니다, 같이 해야 완전한 200%가 되는 거”라고 계속 조언해줘요. 저희도 그 말에 동감이에요. 저희는 성장중이지만, 어른이 되더라도 악동 뮤지션의 순수함의 색깔은 지켜나갈 겁니다.”

/이성주기자

강정호 4호 홈런포 · 결승타점 팀 연패 탈출 ‘일등공신’

시즌 타율 0.292로 끌어 올려…전체 타점 8개로 늘어나
피츠버그 시카고컵스에 2-1로 1점차 짜릿한 승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시즌 4호 홈런포와 함께 결승타점을 올리는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연패 탈출 선봉에 섰다.

강정호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6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렸다.

전날 안타 없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며 2경기 연속 침묵했던 강정호는 식어던 방망이가 폭발하며 시즌 타율을 종전 0.250에서 0.292(24타수 7안타)로 끌어 올렸다.

홈런은 4개, 타점은 8개로 늘렸다.

이날 팀은 2-1로 1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컵스전 2연패에서 벗어났다.

팀이 올린 2점 모두 강정호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컵스 선발 존 레스터를 상대한 강정호는 0-0이던 2회초 무사 1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끈질긴 승부를 했지만 8구째 8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지켜보다 루킹 삼진을 당했다.

강정호는 투수전 속에 0-0으로 맞서던 5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해 다시 레스터를 상대로 5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유격수 애디슨 러셀에게 잡히고 말았다.

0의 행진 속에 강정호는 7회 2사 2루에서 이날 세 번째 레스터를 만났다.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이번에도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했다.

잘 맞은 타구는 외야 오른쪽 펜스까지 가며 2루타가 됐고, 2루 주자가 여유 있게 홈을 밟으며 팀에 귀중한 선취점을 안겼다.

강정호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팀이 1-0으로 살얼음판 리드를 지키던 9회에는 컵스의 4번째 투수 헥터 론돈을 상대로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7구째 96마일(약 154.5km)의 빠른 공을 때려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시즌 4호 홈런을 날렸다.

2-0으로 앞선 피츠버그는 9회말 컵스에게 1점을 허용했지만 승리를 지켜내며 2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날 승리로 피츠버그는 19승17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컵스(27승9패)에 이어 2위가 됐다.

/김민근기자

강정호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6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렸다.

NBA 토론토 랩터스, 팀 창단 첫 콘퍼런스 결승 진출

미국프로농구(NBA) 토론토 랩터스가 1995년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동부콘퍼런스 결승에 진출했다. 21시즌 만이다.

토론토는 16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에어캐나다 센터에서 열린 마이애미 히트와의 2015~2016 NBA 플레이오프 동부콘퍼런스 준결승(7전4선승제) 7차전에서 116-89 완승을 거뒀다.

3승3패에서 최종 7차전을 잡은 토론토는 4승3패로 마이애미를 따돌리고 콘퍼런스 결승에 안착했다. 상대는 플레이오프 들어 8연승을 기록 중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다.

토론토는 8번째 플레이오프 진출 만에 처음으로 콘퍼런스 결승에 오르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내는데 성공했다.

NBA 30개 구단 중 콘퍼런스 결승을 경험하지 못한 팀은 살아날 토론토는 제공권에서 압도했다. 토론토가 리바운드 50개를 잡은 반면에 마이애미는 30개에 그쳤다.

포인트가드 카일 라우리가 35점(9어시스트), 슈팅가드 더마 드로잔이 28점을 올렸다. 한편, 서부콘퍼런스 결승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오클라호마시티 썬더의 대결이다. 17일부터 돌입한다.

/김민근기자

최미선 세계양궁 월드컵 3관왕…한국 금메달 4개

양궁 여자 세계랭킹 1위 최미선(광주여대)이 세계양궁연맹(WA) 현대 월드컵 2차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를 포함해 금메달 4개를 땄다.

최미선은 16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메데진의 메데진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중국의 우지아신을 6-0으로 가볍게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지아신은 8강에서 기보배(광주시청)를 꺾은 복병이었지만 최미선은 한 세트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냈다. 최미선은 기보배, 장혜진(LH)과 함께 출전한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중국을 6-0으로 제압했다.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 7회 연속 금메달을 거머쥔 효자종목으로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8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최미선은 김우진(청주시청)과 출전한 혼성전 결승에선 일본을 5-1로 제압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김우진, 이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 구본찬(현대제철)이 출전한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 결승에서 멕시코를 6-0으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김우진은 혼성전과 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에 올랐다.

리우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한국은 이번 대회 5종목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민근기자

진안홍삼배 전국동호인클럽축구대회 성료

제2회 진안홍삼배 전국동호인클럽 축구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졌다.

전국 각지의 아마추어 축구동호인 1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로 예선전을 실시한 후 각 조 1·2위팀의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영광의 우승컵은 지난해 우승팀인 전북 전주의 건지클럽에게 돌아갔으며, 준우승은 경기 평택의 LG모바일, 공동 3위는 경기 안성의 GOOD FC와 부산 감천 FC가 각각 차지했다.

15일 열린 결승전에는 휴일을 맞아 선수 가족들과 진안군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각자의 팀을 응원하며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으며 선수들 또한 프로경기 못지않은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군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물 마이신과 홍삼의 고장인 진안군에서 국민 통합의 스포츠인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대회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